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박기량¹, 박원주^{2*}

¹성북구 심리지원센터, ²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How Insecure Adult Attachment of Gay Men Affect Depression and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Minority Stress

Ki-Ryang Park¹, Won-Ju Park^{2*}

¹Psychosocial Support Center, Seongbuk Community Health Center

²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형, 회피형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 있어, 세 가지 형태의 소수자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매개 효과를 분석 및 검증한 결과, 애착 불안이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착 회피가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착 불안이 반동성애 폭력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4가지 경로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과 불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통해, 심리치료 현장에서 치료 근거 및 성소수자 행동의 해석 근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적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국내에서 주로 LGB(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통합 연구로 진행되어왔던 정신건강과 소수자 스트레스 관련 연구와는 달리, 성소수자 표본의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추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후속 연구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을 희망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ree forms of minority stress on the relationships among insecure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anxiety in gay men.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analysis, four routes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attachment anxiety through social stigma on both depression and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through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nd attachment anxiety through anti-homosexual violence on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s two implications. The first relates to psychological health and education in Korean gay men by obtain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them. The second is that, unlike studie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minority stress, which have been mainly conducted via LGB(Lesbian, Gay, Bisexual) integrated studies, gay men were extracted from the LGB samples for this study. We hope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promotion of psychological health and for subsequent lesbian, gay, bisexual, transsexual studies in the future.

Keywords : Sexual Minority, Gay,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xiety, Minority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yang Cyber Univ.)

email: parkwj@hycu.ac.kr

Received July 12,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August 12,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본 연구의 표본인 남성 동성애자는 소위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중 게이(gay)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성소수자들의 정신 이상 보고 비율은 비성소수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주요 우울 장애 보고 비율은 비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1].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취약성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2-6].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취약성 경향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향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그를 기반으로 한 소수자 스트레스이다[7]. 앞서 언급한 사회적 차별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 직접적인 폭행, 물리적 심리적 따돌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동성애자들의 범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물질남용의 비율의 증가를 유발하기도 한다[8].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4],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5]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소수자의 내면적 관계 지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영향력보다는 성소수자 집단 내부, 외부의 사회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또한 사회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소수자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서 고려하기도 하였다. 다만,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내면적 관계 지각 요인을 독립 변인으로서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인 점, 성소수자의 애착 불안정이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9-11] 영향을 미치는 점[12]을 고려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소수자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attachment)은 유아가 태어난 생애 초기에 자신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양육자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만들어지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정적 유대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성인 애착(adult attachment)은 애착의 개념을 확장한 이론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인애착은 유아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친밀 관계를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신체적 행복감을 도모하는 개념이다[13]. 반면, 본 연구에서 매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인 소수자 스트레스는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혹은 인식한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이다. 즉,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기틀이 형성된다는 점,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자각하는 시기 이전, 이후에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적 차이를 보인다. 불안정 성인애착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로 구분된다. 애착 불안 차원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거절 등으로 인한 관계의 종결을 두려워하여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애착 불안이 높을 경우, 타인 긍정 자기 부정의 표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애착 회피 차원의 경우 이미 형성된 관계의 종결을 두려워하는 불안형과 달리, 관계의 형성 자체를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애착 불안과는 반대로 타인 부정 자기 긍정의 표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상술하였듯,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LGB: Lesbian, Gay, Bisexual)들의 정신 이상(mental disorder) 보고 비율은 비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주요 우울 장애 보고 비율은 비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1].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취약성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2-6].

세 번째 요인으로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이성에 중심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14]. 즉, 성소수자들의 경우, 비성소수자들에 비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성소수자들이 얻게 되는 독특한 스트레스를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일컫는다. 국내에서 시행된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4,5]은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Meyer의 LGB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모형[7] 중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internalized homonegativity), 사회적 낙인 인식(perceived stigma), 반동성애 폭력 경험(antigay violence)의 3가지 요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또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4,5,12]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3가지 요인들을 활용하여 소수자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동성애 혐오(homophobia)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의 생

활이나 사고 구조에 매우 부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15],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란 성소수자들이 본인 스스로 성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의 태도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리는 동성애자의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 인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성애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사회적 낙인 인식의 정도가 강한 성소수자들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지배적인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불신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괴리감과 불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7]. 반동성에 폭력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를 말하며, 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15]. 반동성에 폭력 경험은 성소수자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며, 반동성에 폭력을 경험한 동성애자들은 이후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를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은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17], 그리고 우울감 [17,18]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안정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19]을 고려한다면,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이 우울 및 불안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소수자 스트레스의 관계를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로는 불안정 애착이 소수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노인비의 연구[12]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통합 애착과 성소수자의 스트레스 모델(the integrated attachment and sexual minority stress model)을 제안한 Stephanie의 연구[20]를 들 수 있는데, Stephanie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인애착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상호 강화 관계(mutually reinforcing association)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Stephanie가 해당 제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한 선행 연구 중 하나는 남성 동성애자의 인식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은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고한 Zakalik, Wei의 연구[18]이다. 인식된 차별은 인종, 민족, 나이, 종교, 외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 행위와 그에 따른 인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맥락적으로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궤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의 경우, 국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중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는 강병철의 연구가 존재한다[21].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성소수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 낙인을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인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인 동성애자가 이를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재화된 동성에 혐오의 경우, 성소수자의 자살 사고[22], 우울[23,24]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반동성에 폭력 경험의 경우, 앞서 설명한 요인들에 비해 적은 인지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는 해외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7]. 국내에서 또한 반동성에 폭력 경험이 우울과 더불어 동성애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는 연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25].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의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 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4],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5]를 진행한 국내 선행 연구들 또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소수자 스트레스가 이를 매개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 소수자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은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1.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매개로 하는가?
- 연구문제 2-2.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사회적 낙인 인식이 매개로 하는가?
- 연구문제 2-3.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반동성에 폭력이 매개로 하는가?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성 동성애자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1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41세이며, 평균은 31.4세이다.

2.1.2 측정 도구

2.1.2.1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응답자가 통상 경험하는 느낌에 대한 항목을 담고 있는 친밀관계형성검사 개정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Brennan, Clark와 Shaver가 처음 고안 및 개발하였고[26], 한국어판은 김성현이 번안하였다[27]. 36문항 중 18문항은 애착 불안을, 나머지 18문항은 애착 회피를 측정한다.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고안 및 개발한 Brennan의 연구에서, 애착과 회피 하위 차원 문항내적합치도는 각각 .91과 .94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및 번안 작업을 수행한 김성현의 연구에서, 불안 및 회피 하위 차원의 문항내적합치도는 각각 .89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 및 회피 하위 차원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1과 .885이다.

2.1.2.2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BDI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Beck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이영호가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28]. BDI 척도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개발한 Beck의 연구에서는 65에서 .67까지의 신뢰도 및 양분 상관계수를 보였다. BDI 척도를 번안한 이영호의 연구에서, 일반인 집단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84를 보였고, 논문 집단의 대학생 집단의 경우 .81의 내적 신뢰도, .91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4이다.

2.1.2.3 BAI(Beck Anxiety Inventory)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BAI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Beck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권석만이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29]. BAI 척도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번안한 권석만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8이다.

2.1.2.4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과 Dean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를 사용하였다 [4-6,30,31].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는 성소수자가 동성애에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감을 느끼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 소수자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성 지향성 및 욕구를 거부하고자 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신뢰도의 경우, Meyer와 Dean의 연구에서는 .79의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8이다.

2.1.2.5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사회적 낙인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vey가 개발한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철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 및 번안 작업을 수행한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32,33].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개의 문항은 차별 인식 요인을 측정하고, 4개의 문항은 낙인 비인식 요인을 측정한다. 신뢰도의 경우, 낙인화 척도를 개발한 Harvey의 연구에서는 .94의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2이다.

2.1.2.6 반동성애 폭력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반동성애 폭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an이 개발한 반동성애 폭력 척도를 사용하였다[34]. 동성애 폭력 척도 신뢰도의 경우, 척도를 번안한 김은경과 척도를 수정한 박수현의 연구에서 각각 .72와 .88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었다 [2,35].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7로 나타났다.

2.1.3 자료 분석

설문 참여자 110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애착,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우울, 불안,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된 변인들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5.0과

PROCESS macro 3.3을 사용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술통계량과 Pearson의 상관계수 값의 결과는 Table 1에 기재되었다. 불안정 성인애착의 변인을 통합적으로 볼 경우, 우울($r=.466, p<.01$), 불안($r=.240, p<.05$)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세 가지 소수자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유의확률($r=.307\sim.397, p<.05$)을 보였다.

애착 불안의 경우 우울($r=.426, p<.01$), 불안($r=.318, 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세 가지 소수자 스트레스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유의확률($r=.309\sim.402, p<.01$)을 보였다. 애착 회피의 경우 우울($r=.333, p<.01$)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세 가지 소수자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r=.270, p<.01$), 사회적 낙인과는($r=.336, 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Results (N=110)

	1	1-1	1-2	2-1	2-2	3-1	3-2	3-3
1	1							
1-1	.83**	1						
1-2	.80**	.33**	1					
2-1	.47**	.43**	.33**	1				
2-2	.24*	.32**	.06	.58**	1			
3-1	.36**	.31**	.27**	.18	.11	1		
3-2	.40**	.31**	.33**	.36**	.38**	.30**	1	
3-3	.31**	.40**	.10	.42**	.28**	.22*	.38**	1
M	3.50	3.34	3.71	1.49	1.35	1.92	2.36	1.44
SD	0.87	1.11	1.03	0.39	0.37	0.82	0.83	0.64
S	-0.02	0.25	-0.14	0.95	2.18	0.68	0.53	2.44
K	-0.66	-0.58	-0.67	0.86	7.59	-0.30	-0.20	6.52

* $p<.05$, ** $p<.01$

1. Insecure Attachment
 - 1-1. Attachment Anxiety
 - 1-2. Attachment Avoidance
 - 2-1. Depression
 - 2-2. Anxiety
 - 3-1. Internalized Homonegativity
 - 3-2. Perceived Stigma
 - 3-3. Antigay Violence
- M. Mean
- SD. Standard Deviation
- S. Skewness
- K. Kurtosis

소수자 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인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볼 경우, 사회적 낙인은 우울($r=.364, p<.01$), 불안($r=.383, p<.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동성에 폭력은 우울($r=.419, p<.01$), 불안과($r=.282, 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2.2.2 변인들간의 매개효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5가지 경로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의 경우 애착 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고, 애착 회피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동성에 폭력의 경우 애착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애착 불안과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1 애착 불안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 성향은 사회적 낙인($\beta=.309, t=3.381, p<.01$)과 우울($\beta=.346, t=3.907,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은 우울($\beta=.257, t=2.89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121$)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2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은 애착 불안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불안 성향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8, CI[.005\sim.06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1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11	.03	3.36**	.00	.04	.17
2 → 3	.18	.06	3.24**	.01	.01	.03

* $p < .05$, ** $p < .01$, *** $p < .001$

1. Attachment Anxiety
2. Perceived Stigma
3.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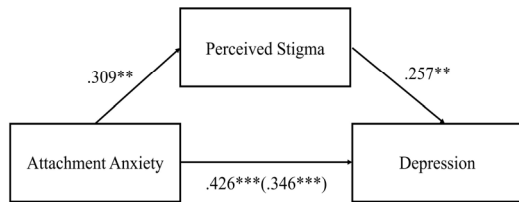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1

2.2.2.2 애착 불안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 성향은 사회적 낙인($\beta=.309$, $t=3.381$, $p<.01$)과 불안($\beta=.202$, $t=.2411$, $p<.0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은 불안($\beta=.315$, $t=3.445$,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073$)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3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은 애착 불안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불안 성향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2$, $CI[.004\sim.068]$).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2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7	3.38**	.00	.10	.37
1 → 3	.07	.03	2.41*	.02	.01	.13
2 → 3	.14	.04	3.45**	.00	.06	.22

* $p < .05$, ** $p < .01$, *** $p < .001$

1. Attachment Anxiety
2. Perceived Stigma
3. Anx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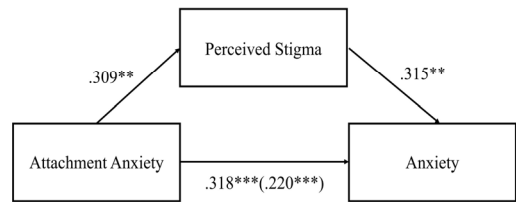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2

2.2.2.3 애착 회피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회피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회피는 사회적 낙인($\beta=.336$, $t=3.713$, $p<.001$)과 우울($\beta=.237$, $t=.255$,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 우울($\beta=.257$, $t=2.89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090$)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3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은 애착 회피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회피 성향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6$, $CI[.009\sim.075]$).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3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7	.07	3.71***	.00	.13	.42
1 → 3	.09	.04	2.56*	.01	.02	.16
2 → 3	.13	.04	3.06**	.00	.05	.22

*p<.05, **p<.01, ***p<.01

1. Attachment Avoidance
2. Perceived Stigma
3.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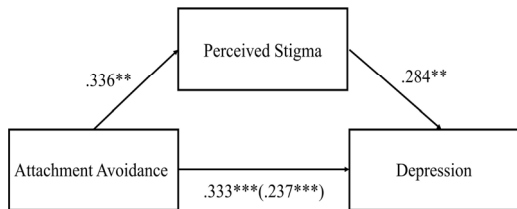


Fig. 3.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3

2.2.2.4 애착 불안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동성애 폭력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반동성애 폭력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beta=.402, t=4.569, p<.001$)과 우울($\beta=.307, t=3.363,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동성애 폭력은 우울($\beta=.295, t=3.238,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107$)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4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반동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불안 성향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2, CI[.011\sim.082]$).

Table 5. Mediating Effect of Antigay Violence 1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10	.03	3.36**	.00	.04	.17
2 → 3	.18	.06	3.24**	.00	.07	.29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Antigay Violence
3.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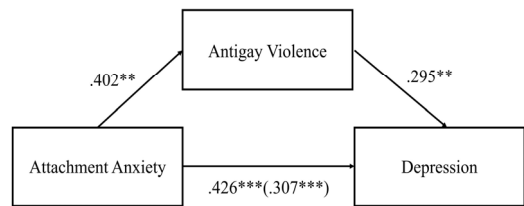


Fig. 4. Mediating Model of Antigay Violence 1

2.2.2.5 애착 불안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반동성애 폭력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반동성애 폭력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beta=.402, t=4.569, p<.001$)과 불안($\beta=.224, t=.2477,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동성애 폭력은 불안($\beta=.183, t=1.860,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동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beta=.402, t=4.569, p<.001$)과 불안($\beta=.224, t=.2477,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동성애 폭력은 불안($\beta=.183, t=1.860,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동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Antigay Violence 2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08	.03	2.48*	.02	.02	.15
2 → 3	.11	.06	1.86	.07	-.01	.22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Antigay Violence
 3. Anx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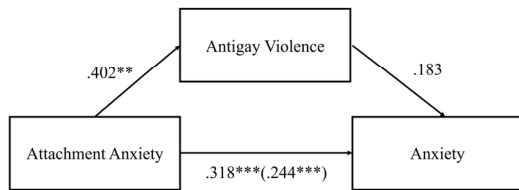


Fig. 5. Mediating Model of Antigay Violence 2

3. 결론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바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인 불안정 애착이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력으로 구분되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각각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애착 불안의 경우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력, 우울 및 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회피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소수자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과 밀접한 관련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낸 상관관계는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이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17], 그리고 우울감[17,18]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안정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침[19]을 밝혀낸 선행연구, 불안정 성인 애착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밝혀낸 선행 연구[12],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간의 관계[4] 및 정신적 웰빙[5]의 관계를 밝혀낸 선행 연구들과 궤를 함께한다.

둘째,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우울, 불안이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성소수자 통합 연구[4,5]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스스로의 성적체성을 거부하는 성향이 우울과 불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결과는 추후 국내의 성소수자 연구가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남성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우울과 불안간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박의주의 연구[6]가 유일하다. 박의주의 연구에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우울, 불안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후 LGB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호림의 연구에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우울과 불안 요소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상관관계를 보이고[4], 유사한 맥락으로 LGB를 대상으로 시행한 황단비의 연구에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정신적 웰빙과 상관관계를 보였다[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우울, 불안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시점에 있어 박의주의 연구와 약 10년간의 시간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의 20~30대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 있어, 본 연구와 박의주의 연구 표본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소폭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국내의 LGB대상 연구와 남성 동성애자 대상 연구는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같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Veniegas와 Conley의 연구 결과[36]와도 궤를 함께한다.

셋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경향성이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에 더욱 민감하고 이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우울과 불안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는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애착 불안 경향성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과 불안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성소수자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국내의 선행 연구들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더 나아가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성인애착은 내담자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다. 즉,

성소수자임을 자각한 이후 발생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보다 더욱 견고하고 교정이 비교적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그리고 위와 같은 특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성인 애착 중 애착 불안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남성 동성애자 내담자를 마주한 치료자의 경우, 애착 불안 경향성보다 비교적 교정이 용이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우울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을 가능성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회피 경향성은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 회피가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에 더욱 민감하고 이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우울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애착 회피 경향성이 불안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우울에는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 부정, 자기 긍정의 표상을 추구하는 애착 회피 유형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성소수자가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귀인하여 느끼는 피해의식 수준인 사회적 낙인 인식은, 애착 회피 경향성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가 자기 표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방해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피해이었음에도, 나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겪게 된다는 사회적 낙인을 기반으로 한 인식은 자기 표상의 긍정성을 저하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결과 또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우울 증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강한 애착 회피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동성애자를 마주한 치료자의 경우, 내담자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탄생한 애착 회피 경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를 우선하여 교정을 시도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탐색 및 교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경향성은 반동성애 폭력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반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심리적 폭행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앞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의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과 마찬가지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심리

치료 장면에서 애착 불안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동성애 폭력을 경험한 뒤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치료자는 반동성애에 폭력 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통합적인 가정보다는 우울과 불안에 각기 다른 영향성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다 세부적인 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불안정 애착 성향의 남성 동성애자를 내담자로 맞이한 심리치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들은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 및 태도에 대한 해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에, 추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둘째, 성소수자 표본의 세분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통합된 성소수자 표본과 남성 동성애자 표본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시사점은 본 연구의 후속 연구 제언 사항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성소수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에 관한 연구의 표본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표본을 성소수자 중 남성 동성애자로만 설정한 것은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앞서 설명하였듯 같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성격적인 요인에도 방점을 찍은, 본 연구와 같은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여성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세부적인 영역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연구의 표본의 숫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수는 110개이다. 남성 동성애자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숫자는 국내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평균적인 표본 수이다(4-6,12). 표본의 희소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연구에 비해, 충분한 표본의 수라고 보기에 부족할 면이 있다. 추후 합리적인 연구 지원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척도 선정에 있어 표본의 특성을 더욱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임상적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BAI 척도를 활용한 것은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의 정도가 비성소수자에 비하여 소폭 높을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BDI 척도를 활용한 우울에 비하여, 불안의 경우 타 변인들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후속 연구에 있어 성소수자의 불안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불안을 측정하는 BAI 척도보다는 사회적인 불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여타의 척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 DeAngelis, "New data on lesbian, gay and bisexu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33, no.22, pp.46, 2002.
- [2] E. K. Kim, J. H. Kwon, "The Impact of Gay-Related Stressor on Mental Health of Gay M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4, pp.969-982, 2004.
- [3] J. E. Heo, K.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osexuals of Homosexuality-related Stresse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 interdisciplinary approach*, vol.4, no.1, pp.57-72, 2004.
- [4] H. R. Lee, *The Effect of Minority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LGB)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5] D. B. Hwang, *A relationship between Minority Stress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Korea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and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2020.
- [6] E. J. Park,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Homophobia,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ming out in a sample of Gay Me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1.
- [7] I. H. Meyer,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Psychological Bulletin*, vol.129, no.5, pp.674-697, 2003.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29.5.674>
- [8] B. A. Rienzo, J. W. Button, J. j. Sheu, Y. Li, "The politics of sexual orientation issues in American school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vol.76, no.3, pp.93-97, 2006.
DOI: <https://doi.org/10.1111/j.1746-1561.2006.00075.x>
- [9] S. M. Craft, J. M. Serovich, P. C. McKenry, J. Y. Lim, "Stress, attachment style, and partner violence among same-sex couples",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Vol.4, No.1, pp.57-73, 2008.
DOI: <https://doi.org/10.1080/15504280802084456>
- [10] V. J. Derlega, et al, "Unwanted pursuit in same-sex relationships: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investment model variables, and sexual minority stressors", *Partner Abuse*, Vol.2, No.3, pp.300-322, 2011.
DOI: <https://doi.org/10.1891/1946-6560.2.3.300>
- [11] J. J. Mohr, D. Selterman, R. E Fassinger, "Romantic attachment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same-sex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0, No.1, pp.72-82, 2013.
DOI: <https://doi.org/10.1037/a0030994>
- [12] I. B. No, *Effects of Self-Inconsistency and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GB People's Attachment Type and Minority Stres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22.
- [13] M. Main, N. Kaplan,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0, no.1/2, pp.66-104, 1985.
DOI: <https://doi.org/10.2307/3333827>
- [14] I. H. Meyer, S. Schwartz, D. M. Frost, "Social patterning of stress and coping: Does disadvantaged social status confer more stress and fewer coping resourc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7, no.3, pp.368-379, 2008.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8.03.012>
- [15] G. H. Yoon, *Psychology of Homosexuality*, p.364, Hakjisa Publisher, 1997.
- [16] B. Majo, L. T. O'Brien,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6, pp.393-421, 2004.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6.091103.070137>
- [17] J. Keleher, M. Wei, K. Y. Liao, "Attachment, positive feelings about being a lesbian, perceived general support,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9, No.8, pp.847-873, 2010.
DOI: <https://doi.org/10.1521/jscp.2010.29.8.847>
- [18] R. A. Zakalik, M. Wei, Adult attachment, perceive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depression in gay males: Examining the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3, no.3, pp.302-313, 2006.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3.3.302>
- [19] W. A. Jellison, A. R. McConnell,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between secure attachment and disclosure outcomes among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Vol.46, No.1-2, pp.159-177, 2008.
DOI: https://doi.org/10.1300/j082v46n01_05

[20] S. H. Cook, B. Calebs, "The Integrated Attachment and Sexual Minority Stress Model: Understanding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i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Sexual Minority Men", *Behavioral Medicine*, vol.42, no.3, pp.164-173, 2016.
DOI: <https://doi.org/10.1080/08964289.2016.1165173>

[21] B. C. Kang,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xual Minoritie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22] G. M. Herek,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278, Sage Publications, 1988. pp.160-186.

[23] G. M. Herek,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243, Sage Publications, 1994, pp.176-205.
DOI: <https://doi.org/10.4135/9781483326757>

[24] W. Mayfiel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ized homo-negativity inventory for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vol.41, no.2, pp.53-76, 2001.
DOI: https://doi.org/10.1300/1082v41n02_04

[25] J. H. Bae, *Suicide-Related Behavioral trait of Homosexual*,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7.

[26] J. A. Simpson &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438, The Guilford Press, 1997, pp.46-76.

[27] S. H. Kim, *Validation Study on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 Focu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28] Y. H. Lee, J. Y. Song,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 SDS ,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0, no.1, pp.98-113, 1991.

[29] S. M. Kwon,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in Anxiety Disorder", *The Korean Society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iatric Classification*, vol.6, no.1, pp.37-51, 1997.

[30] J. L. Martin, L. Dean, *Ego-dystonic homosexuality scale(Summary of Measures: Mental Health Effects of AIDS on At-Risk Homosexual Men)*, Unpublished manuscript, Columbia University, USA.

[31] E. G. Kim, *Actual Condition of Health Promotion Act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Gay Men : Focu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9.

[32] B. C. Kang,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xual Minoritie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33] R. Harvey,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tigm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41, no.2, pp.174-189, 2001.
DOI: <https://doi.org/10.1080/00224540109600545>

[34] G. M. Herek, K. T. Berrill,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p.328, Sage

Publications, 1992, pp.46-64.

[35] S. H. Park, *Minority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lesbians and gay me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0.

[36] R. C. Veniegas, T. D. Conley, "Biological research on women's sexual orientations: Evaluating the scientific evid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6, no.2, pp.267-282, 2002.
DOI: <https://doi.org/10.1111/0022-4537.00165>

박 기 량(Ki-Ryang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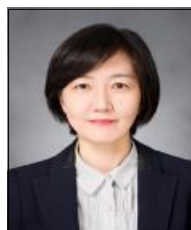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 경영학과 (심리학사, 경영학사)
- 2022년 2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학과 (심리학석사)
- 2022년 7월 ~ 현재 : 성북구 보건소 심리지원센터 임상심리사

<관심분야>

정신역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조지아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 2006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역동치료, 상담사례연구